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지
:대인적 자원부분을 중심으로

The social network, resource exchange, and perception of community
resources among rural housewives
: on the part of interpersonal resources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차성란

Dept. of Home Management, Taejeon Univ.
Assistant Professor : Cha, Seong R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In the traditional rural community, social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are the routes of resources. But as industrialization goes on, rural community has changed. I wonder that rural housewives have yet the traditional social network structure.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social network, resource exchange, and perception of community resources.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rural housewife's social network structure, network range and depth were affected by family income, age of the youngest, and farming time. Network boundary was affected by near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community resources and community level of living. 2. Community resources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the resource exchange. 3. Perception of community resources was affected by the network depth and was not by the resource exchange.

1. 서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규정짓는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사회에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초로 공식, 비공식적인 형태로 상부상조가 이루어져 왔다. 한 예로 계는 마을의 주민을 중심으로 금융활동, 생산협동, 사회복리를 위한 공공적 목적, 친목과 인보상조, 제사, 관혼상제 비용부담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김주숙, 1994). 이 밖에도 농촌지역사회는 주민들 사이에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인적, 물질 자원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비형식적인 관계망을 유지하므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생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지역사회는 도시화, 근대화, 공업화 등의 영향으로 1차적 유대관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사회의 경우 70년대 후반 이후 정부는 농촌공업화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공업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농업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공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다(농촌경제연구원, 1980, 김주숙, 1994에서 재인용).

농촌공업화와 같이 산업의 구조가 1차산업에서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 전환되면, 생산관계와 생산방식의 변화, 생산단위의 확대, 노동력의 질적향상 등이 이루어지므로써 산업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물론 개인의 가치와 규범, 생활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강대기, 1989). 때문에 농촌 공업화는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시적 특성인 개인주의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보급시킬 것이며, 농촌주부의 생활방식과 농촌의 전형적인 1차적 유대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한편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가정학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가족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뿐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정의 복지향상에 중요하다. 농촌지역사회의 사회관계망은 가정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자원이라 하겠다. 특히 농업생산과 가정생활

의 유지가 근접해 있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므로 환경자원이 농촌가정생활유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도시가정의 경우보다 더욱 클 것이다.

사회관계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망과 도시빈민 가정의 부업이나 고용을 위한 생존전략체계로서의 사회관계망의 기능(조은 외, 1992; 권현수, 1992)이나 노인가정의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지지자원으로서의 사회관계망의 기능에 대해 다루어져 왔으며(이명자, 1985; 최정아, 1991; Keith, 1986; Levitt, 1986),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관계망의 기능에 대해서는 도시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근린에 대한 애착에 대해 다룬 연구(오승환, 1990; Kasarda & Janowitz, 1974; Silverman, 1987; Sampson, 1988)가 있으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 및 근접환경 변인이 농촌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이를 통한 자원교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유지를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농촌지역사회자원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소득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추진되어온 농촌공업화가 농촌소득증대 이외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농촌가정의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농촌관련 정책수립, 농촌지역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관계망과 자원교환

사회관계망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관계망은 구체적인 자원을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간의 관계(network)를 나타낸다. McIntyre는 사회관계망을 "개인보다 큰 사회단위 사이의 사회적 자원들에 대해 그것의 동원 또는 준비를 조절할 수 있는 연결구조"(McIntyre, 1986)라 하였으며,

Cook 등(1983)은 사회관계망을 사람들이 가지있게 여기는 예를 들면 정보, 애정, 충고, 재화나 직접적인 서비스와 같은 자원이 이동하는 교환관계망으로 개념화하였다. Galbarino는 사회관계망을 “개인에게 정보, 감정적 확신, 물질적, 경제적 부조 그리고 관심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자아감을 제공하는 개인 관계 교환의 범위일 뿐만 아니라 도움의 구조와 규칙적인 양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여(Whittaker & Galbarino, 1983) 사회관계망 구조에 따라 자원교환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으로는 범위, 강도, 경계 등을 들 수 있다. 관계망 범위는 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의 숫자를 말하며, 강도 또는 친밀도는 한 개인이 그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의 친밀한 정도이고, 경계는 일정한 관계망과 다른 관계망과의 연결정도를 일컫는 것으로서 다른 관계망과의 연결이 빈번할수록 관계망 경계는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Gottlieb, 1981).

둘째로, 일정한 사회관계망 구조를 통해 자원을 교환하는 것이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이다. 자원교환은 사회적 지원(신기영 외, 1991), 사회적 지지(양인숙, 1991)로 개념화되기도 하는데 지원이나 지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수동적으로 자원을 제공받는 것으로 개념화하는데 비해 자원교환은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는 차이가 있다. 자원교환은 다시금 사회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므로써 둘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Wellman(1981)은 자원교환행동이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력이나 지위관계를 결정지음으로써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이는 다시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Cook 등(1983)은 일련의 참여자(actors)들이 관계망에 속해있는 다른 참

여들과의 교환기회를 통해 가치있는 자원을 분배하며, 이것이 오랜기간(historically) 동안 반복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교환관계로서 활용된다고 하였다. Beutler, Owen과 Hefferan(1988) 역시 사회관계망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정된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가 성립되기까지는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차성란(1993)은 사회관계망을 가족원들의 시간과 금전자원을 투입요소로하여 얻어지는 가정생산활동의 중간산출물로서 또다른 자원교환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망은 참여자들 사이의 자원교환행동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되어 형성되는 자원교환의 구조틀로서 이를 통해 개인, 가족의 일상적, 위기적 대처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자원인지¹⁾

1)지역사회자원인지 : 대인적 자원 부분

가정을 둘러싼 근접환경자원의 하나인 지역사회자원은 물리적 주거지와 사회적 관계에 의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가정관리학연구회, 1991). 전자는 물리적 자원인데 비해 후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친구, 친척,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적인 지역사회자원이라 할 수 있다. 가족자원을 인적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구분한 Steidle 과 Bratton (1968)에 의하면 대인적 자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된 협동적 태도, 의사소통, 친밀감, 충성심 등으로 구성된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형성된 우호적 관계는 오랜시간 누적됨으로써 관계망을 형성하며, 형성된 관계망은 중요한 자원의 이

1) 근린과 지역사회를 정확히 구분한다면 본 연구의 조사단위는 근린(Neighborhood)이다. 도시사회학에서는 근린의 특성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위로, 지역사회는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공적이고 조직적인 기능을 가진 곳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근린과 지역사회는 별개의 것이라기보다 근린은 지역사회의 연속선 상의 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여길 수 있다. 즉 근린은 도시내 하위지역사회(subcommunity)를 구성하며 단지 지역사회와 다른 점은 경제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Olson, 1982).

한편 가정학에서는 가정을 둘러싼 근접환경(Near environment)이라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택하였다.

동통로가 된다(차성란, 1993). 따라서 대인적 지역사회 자원은 지역사회내 특정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형성된 우호적 사회관계망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동, 교환되는 자원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중 대인적 자원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도시빈민의 경우 사회관계망이 하나의 생존전략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은 사회학 연구에서 이미 알려졌은 바 있다. 사회관계망을 통해 직업, 부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금전, 재화, 서비스 등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써 부족한 가족의 자원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관계망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Cobb(1979)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원조가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관계망을 통한 원조는 용어의 사용이나 개념정의에 있어 학자들간에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그것이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며(양인숙, 1991), Levy는 이를 적응자원(adjustive resources), 사회심리적 자원(psychosocial assets)으로, Kaplan은 심리적 지지자원 또는 이용가능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호숙(1992)은 가족자원을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재정적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지지자원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친구관계, 친척, 이웃, 지역사회, 사회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조를 말하며 이는 가족의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즉 사회관계망을 통해 교환되는 자원은 개인이 위기나 갈등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

한편 서리나(1994)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친구, 친척, 이웃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심리적 유대자원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말하였다. 사회심리적 자원은 개인, 집단으로서의 가족특성, 사회심리적 교류를 통하여 형성되는 인지적 차원의 가족자원이며(서리나, 1994) 자원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고 할지라도 가족원, 특히 가정관리자의 내적 동기, 정서상태 등의 주관적 지각을 근본으로하여 인지하는 자원이다(옥선화, 정민자, 1984).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원의 하나로 관계망 지원은 자신이 상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믿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Cobb, Cooke et al., 1988에서 재인용). 이는 곧 지역사회자원이 이웃과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 이외에 어떤 관계망에 속해 있으므로써 필요할 때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과 안정감이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원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또는 '사용의 가능성을 갖는' 수단으로 정의되는 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잠재력이 인정될 경우 자원으로 간주된다(임정민 외, 1994). 대인적 지역사회 자원은 관계망을 통해 교환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써 필요할 때 자원교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두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대인적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내 이웃들과의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써 위기시에 지역사회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잠재적 자원 이용가능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자원혜택의 합이며 지역사회자원인지는 이를 주관적으로 지역사회자원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2) 사회관계망과 지역사회자원인지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인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원받는 자원의 종류나 빈도, 사회관계망의 구조에 영향받을 수 있다. Mitchell(1969)과 Fischer 등(1977)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관계망 형태와 상호작용적인 특징은 그 관계망의 구성원이 되는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상이한 구조적 특징을 지닌 관계망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부양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관계망 구조를 살펴보면 사

2) 이후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자원 중 대인적 자원 부분을 일컫는다.

회관계망이 균형적인 구조를 이루는 경우, 사회관계망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분배할 것이며, 불균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오히려 더 적은 양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본다 (Cook, 1982). 때문에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거주자들이 모여사는 지역사회에서는 보다 균형적인 사회관계망을 지닐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농촌가정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협상을 통해 모든 거주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즉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관계망 참여자들의 이익, 즉 혜택받을 수 있는 자원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근린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이에 따른 자원교환행동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Wellman과 Leighton, 1979). 지역사회의 긴밀한 1차적 유대관계가 사라졌다고 보는 일명 근린소멸론에 의하면 도시인들은 결속력있는 지역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보다는, 여러개의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으나 제한적으로 참여하는(limited members of several social networks) 구성원들이다. 관계망 구조는 낮은 밀도, 개략적인 경계, 좁게 한정된 유대들을 가진다고 보며 이런 경우 결속력있는 활동이나 감정을 위한 구조적인 기초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계망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지지 즉 자원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근린존속론자들은 현대산업사회에도 근린에는 일차적인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도시인들은 여전히 이웃들이며, 지역에 근거한 지역사회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웃들 사이의 유대는 사교와 부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관계망 구조는 여러개의 가치를 갖는 강도가 강한 유대이며 일상적이고 위급한 사건을 다룰 때 도움을 동원하는 것을 촉진하는 밀도있는 관계망을 이룬다. 이같은 관계망 구조에서는 빈곤이나 억압, 재난 등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조절적인 지역사회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조밀한 짜임, 분명한 경계를 지닌 지역사회는 특히 내부자원을 완강히 보존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강력히 행사되는 외부적인 힘에 직면하여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한다. 반면 그들은 외부적인 연결을 유지할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린존속론에서와 같은 사회관계망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많은 량의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린확산론에 의하면 근린의 사회관계망 경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으며, 가지(strands)가 많은 구조를 지니고, 범위가 넓은 관계망은 많은 직접, 간접의 외부적인 연결을 통해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하기에 잘 구조화되어 있다. 관계망은 결속력있는 활동과 감정을 위한 구조적 기초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망은 일상적 또는 위급한 일을 처리할 때 일반적인 목적 또는 구체적인 원조를 동원할 수 있는데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넓은 관계망 구조의 성격보다는 두 사람의 유대의 질에 좀 더 의존한다. 여기서는 결속력있는 지역사회를 숨막힐 것 같은 사회적 통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지각하며 내부적인 사회적 통제를 위해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확산론에서와 같은 사회관계망 구조를 지닐 때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통제감은 적을 것이며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로부터 얻는 자원 역시 적게 된다.

이상에 살펴 본 바와같이 근린이론들에서 보여지는 사회관계망 구조적 특징에 따라 지역사회내 주민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지며, 이는 곧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인지도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3. 선행연구

현대화, 도시화의 변인은 사회관계망 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주민들 사이의 자원교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화는 대개 개인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제한적이고 단일한 관계로 변화시킨다. 또 복잡한 구조의 사회적 관계는 좀 더 지속적이고, 지지적이며, 친근하다고 가정되며 그런 관계는 좀 더 빈번하게 자원교환을 하게 된다. 결국 근대화는 복

잡성을 감소시키므로 자원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적인 사회관계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서 도시화는 개인들의 관계망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밀도가 높은 관계망은 개인들에게 좀 더 협조적인 자원교환으로 이어진다(Craven과 Wellman, 1973 Fischer, 1974에서 재인용). Kasarda와 Janowitz(1974)의 연구결과 대도시 거주자들은 농촌지역사회 거주자보다 좀 더 사회관계망 범위가 넓은 경향이 있어 생태학적 요인이 사회관계망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Gans(1962), Young과 Willmott(1957) 등은 대도시의 중심지역에서조차도 개인적인 자원교환이 활발하고 범위가 넓고 밀도높은 사회관계망 구조를 지닌 집단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관계망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변인으로 높은 사회계층 사람들은 거주지역 내에 친구나 친척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그들은 또한 좀 더 공식적인 조직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Kasarda와 Janowitz, 1974). 지위가 높은 사람은 친척과의 관계망보다 직업과 관련된 관계망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의 경우 사회관계망 중 이웃구성비율이 높았다(원효종, 옥선화, 1993)

자원교환에 관한 연구로서 Baldassare와 Fischer(1975)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환경이나 교외거주환경이 이웃과의 자원교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들 차이의 대부분은 계층과 생활주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Hunter(1975)의 연구에 의하면 이웃과의 자원교환은 젊을수록, 백인의 자가소유자일수록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Sampson(1988)의 연구에 의하면 근린내 자원교환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근린환경변인 중 주거안정성이 높고, 도시화 수준이 낮을수록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차성란(1985)의 연구에 의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업주부인 경우 이웃과의 자원교환이 가장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웃과의 자원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란(1993)의 연구에 의하면 이웃과의 자

원교환은 주부가 건강할수록, 근접환경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내의 시설은 긴밀한 사회관계망의 유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루어져왔으며(Kasarda와 Janowitz, 1974) 지역사회 시설자원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자원의 이용이 빈번하고, 공,사적인 모임을 통한 정서적 자원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성란, 1993).

사회관계망 구조 및 자원교환이 대인적 지역사회 자원인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경험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 범위가 넓을수록, 관계망 강도가 강할수록, 사회관계망 경계가 강할수록 자원교환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며, 빈번한 자원교환을 경험할수록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위급한 경우에 상호부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감을 형성케 하므로서 대인적 지역사회자원인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정환경변인 및 근접환경변인이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구조(범위, 강도, 경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정환경변인, 근접환경변인 및 사회관계망 구조가 농촌주부의 자원교환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가정환경변인, 근접환경변인, 사회관계망 구조 및 자원교환행동이 농촌주부의 지역사회자원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가정환경요인으로는 주부의 학력, 가정소득, 막내

자녀연령, 자녀수, 주부의 성장지, 농업노동시간 및 부업노동시간을 포함시켰다. 주부의 성장지역은 농촌, 어촌인 경우 0을 대,중,소도시인 경우 1의 값을 주었다.

근접환경요인으로는 공장유무, 동네의 공동소유자의 갯수, 주관적인 동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였다. 주거지 가까운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경우 0의 값을, 1개 이상 있는 경우 1의 값을 주었다. 주관적인 동네의 생활수준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상, 중, 하의 어떤 수준에 해당하는지 응답토록 하였다.

사회관계망 구조 중 범위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사람들의 수가 몇명인지를 '2-4명'에서부터 '15명 이상'까지의 4점 척도이다.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관계망 범위는 넓다. 강도는 이웃사람들과 친한 정도로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이다'의 1점에서 '깊은 속마음까지도 털어놓는 사이이다'의 4점으로 갈수록 사회관계망 강도는 강하다. 경계는 동네밖의 친척이나 지인들과 만나는 횟수, 전화나 편지를 하는 횟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거의 매일' 만나거나 전화, 편지를 하는 경우 5점, '1년에 한두번' 만나거나 전화, 편지를 하는 경우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관계망 경계가 견고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교환행동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농촌주부들이 가정경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원교환행동 중 재화 교환에 관한 4문항과 서비스 교환에 관한 2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자원교환을 '전혀 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매우 자주한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6문항의 합산점수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자원인지는 위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 동네사람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으로 3개 문항의 합산점수를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기초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중회귀분석시 독립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Tolerance 값을 산출하였다.

4. 조사대상 표집

1995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에 걸쳐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생들이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155부 중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하고 15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조사지역의 선정은 연구자의 시간과 비용상의 한계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각 도별로 연고가 있어 조사가 가능

<표 1> 조사지역

조사지역		빈도	도별	조사지역		빈도	도별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10	30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10	39	
	화성군 봉담면	10			아산시	10		
	양평군 개군면	6			예산군 신암면	2		
	여주군 신북면	1			논산군 연무읍	1		
	이천군 모가면	2			아산군 신창면	1		
	강화군 강화면	1			부여군 규암면	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10	45		부여군 은산면	8		20
	옥천군 옥천읍	10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10		
	옥천군 군북면	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10	10		
	옥천군 이원면	10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10	20	
	옥천군 군서면	5			상주시 공성면	10		
	진천군 이월면	5			계	154		

한 지역을 택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기초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 사회관계망 구조 및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지 수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부들의 사회관계망 구조,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다. 사회관계망 범위가 15명 이상인 경우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6명이 24.0%, 7-15명이 23.4%였다. 사회관계망 강도는 57.8%의 주부들이 이웃집안 사정까지 알 정도로 사회관계망의 강도가 높았다. 사회관계망 경계는 면대면 접촉의 경우 6개월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54)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주부연령	22-29세	8 (5.2)	생활수준	하	108 (70.1)
	30-39세	34 (22.1)		중	25 (16.3)
	40-49세	48 (31.1)		상	21 (13.6)
	50-59세	46 (29.9)	공장갯수	없음	12 (7.8)
	60세이상	18 (11.7)		1-2개	121 (78.6)
		3-5개		21 (13.6)	
주부학력	무학	13 (8.6)	6개이상	23 (15.9)	
	국졸	64 (42.1)	관계망범위	2-4명정도	21 (13.6)
	중졸	34 (22.4)		5-6명	37 (24.0)
고졸 이상	41 (27.0)	7-15명		36 (23.4)	
년간소득	1000만원미만	30 (20.4)	15명이상	60 (39.0)	
	1000-1500미만	50 (34.0)	관계망강도	인사정도	11 (7.1)
	1500-2000미만	19 (12.9)		이름까지안다	23 (14.9)
	2000-2500미만	28 (19.1)		집안사정까지	89 (57.8)
2500만원이상	20 (13.6)	속마음까지	31 (20.1)		
자녀수	1자녀이하	19 (13.6)	관계망경계 (면대면)	1년에 한두번	25 (16.2)
	2	32 (20.8)		6개월 한두번	53 (34.4)
	3-4	79 (51.3)		한달에 한두번	50 (32.5)
	5이상	24 (15.6)		일주일 한두번	22 (14.3)
성장지역	농어촌	126 (81.8)	거의 매일	4 (2.6)	
	대중소도시	28 (18.2)	관계망경계 (통신)	1년에한두번	2 (1.3)
막내자녀 연령	7세이하	26 (16.9)		6개월한두번	21 (13.6)
	8-13세	24 (15.6)		한달에 한두번	74 (48.1)
	14-19세	38 (24.6)		일주일 한두번	46 (29.9)
	20-23세	38 (24.7)		거의 매일	11 (7.1)
	24세이상	28(18.2)	자원교환	5-10점	6 (3.9)
농업노동	0시간	61(42.4)		11-17점	60 (39.0)
	1-5시간	23(15.9)		18-24점	85 (55.2)
	6-10시간	44 (30.6)		25-30점	3 (1.9)
	11시간이상	16(11.1)		지역사회자원 인지	3-7점
부업노동	0시간	108(70.1)	8-11점		44 (28.6)
	1-8시간	25(16.3)	12-15점		105 (68.2)
	9시간이상	21(13.6)			

34.4%, 32.5%로 지역사회 관계망의 경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망 접촉으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는 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교환은 18-24점이 55.2%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자원교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사회자원인지는 12-15점이 68.2%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았다.

2. 가정환경변인 및 근접환경변인의 사회관계망 구조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1) 사회관계망 범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가정환경변인 및 근접환경변인이 사회관계망 구조의 차이 중 사회관계망 범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중회귀분석에 앞서 사회관계망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인들간의 tolerance 값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농업노동시간($\beta=0.405$, $P < 0.001$), 막내자녀연령($\beta=0.332$, $P < 0.01$), 가정소득($\beta=0.227$, $P < 0.05$)의 순으로 사회관계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관계망 범위는 농업노동시간이 길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

록,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더 넓은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노동시간이 길수록 사회관계망 범위가 넓은 것은 노동시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는 농업노동이 협동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에 사용하는 주부들은 이웃들과 농기구나 노동력을 교환하게 되며 이것이 오히려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매개적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 것은 도시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차성란(199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 부들은 자녀양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점차 임의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자녀를 둔 농촌거주 주부의 경우, 도시주부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으로 인해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사회관계망 강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가정환경변인 및 근접환경변인 등이 사회관계망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표 3) 가정소

<표 3> 사회관계망 구조에 대한 중회귀분석

관계망 독립변인	범 위		강 도		경계(면대면)		경계(통신접촉)	
	B	β	B	β	B	β	B	β
주부학력	0.013	0.049	0.022	0.112	0.017	0.065	-0.000	-0.000
가정소득	0.001	0.227*	0.001	0.281**	0.000	0.022	0.000	0.092
자녀수	-0.136	-0.190	0.047	0.090	0.076	0.115	-0.001	-0.002
성장지	-0.153	-0.054	0.182	0.089	-0.048	-0.172	-0.288	-0.130
막내연령	0.046	0.332**	0.009	0.087	-0.006	-0.044	-0.004	-0.038
농업노동	0.090	0.405***	0.013	0.082	-0.018	-0.088	-0.031	-0.174
부업노동	0.026	0.165	0.004	0.033	-0.002	-0.015	-0.009	-0.069
마을생활수준	0.155	0.069	0.093	0.057	-0.007	-0.003	0.499	0.281**
마을공동자원	-0.063	-0.074	0.074	0.121	-0.227	-0.291**	-0.064	-0.096
공장유무	0.022	0.010	-0.237	-0.151	0.249	0.124	0.106	0.062
상수	1.047		1.693		2.633		1.926	
설명력 F값	0.221	3.402***	0.150	2.119*	0.165	2.365*	0.158	2.249*

* P<.05, ** P<.01, *** P<.001

득($\beta=0.281, P<0.01$)이 사회관계망 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부들은 가정소득이 낮은 경우 사회관계망의 강도가 낮으며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소득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망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도시저소득층 가정들이 근린내에서 빈번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조된다. 농촌에서의 저소득 가정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전략으로서 관계망을 강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를 덜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강도 높은 사회관계망에 대한 요구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관계망 경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사회관계망 경계는 동네밖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는 빈도, 그리고 전화나 우편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동네밖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두개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사회관계망 경계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면대면접촉의 차원에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beta = -0.291, P<0.0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소유의 공동자원이 많을수록 분명한 사회관계망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을 소유의 공동자원이 많은 곳에 거주하는 농촌주부들은 그만큼 사회관계망이 폐쇄적이어서 동네밖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대면접촉의 차원에서 본 사회관계망 경계는 주부의 학력이나 성장지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 시간사용과 관련된 막내자녀연령, 농업노동시간이나 부업노동시간 등과 같은 변인들을 포함한 가정환경적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마을의 전통적 성격을 반영해 주는 마을소유의 공동자원이라는 근접환경변인에 영향 받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통신접촉의 차원에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는 마을의 생활수준($\beta = 0.281, P<0.0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주부일수록 마을밖의 사람들과 자주 통신접촉을 하며 따라서 사회관계망 경계가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 사회관계망의 범위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농업노동시간이 길수록 넓었다. 사회관계망 강도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면대면 접촉의 차원에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는 마을소유의 공동자원이 많을수록 폐쇄적이고 분명했다. 통신접촉의 차원에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는 마을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개방적이고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원교환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자원교환행동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다음의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의 tolerance값을 검토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마을의 공동소유자

<표 4> 자원교환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계수	
	B	β
주부학력	-0.015	-0.129
가정소득	-0.000	-0.098
자녀수	-0.207	-0.090
성장지	0.932	0.103
막내연령	-0.022	-0.050
농업노동	0.104	0.147
부업노동	-0.072	-0.142
마을생활수준	-0.542	-0.075
마을공동자원	0.849	0.313**
공장유무	-1.008	-0.145
관계망범위	0.339	0.106
관계망강도	1.179	0.267**
관계망경계(면대면)	0.685	0.198*
관계망경계(전화,우편)	-0.060	-0.015
상수	2.663	
설명력	0.364	
F값	4.743***	

* P<.05, ** P<.01, *** P<.001

원($\beta = .313, p < .001$), 관계망 강도($\beta = .267, p < .001$), 관계망 경계(면대면접촉)($\beta = .196, p < .05$)의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 거주주부의 자원교환행동은 마을에서 주민 공동의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관계망 강도가 높을수록, 관계망 경계(면대면접촉)가 약할수록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사회가 소유한 공동자원이 자원교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업화라는 지역사회의 근대화 수준을 반영해 주는 지표가 일차적 유대관계의 감소를 설명해주는 것보다 지역 사회 공동자원과 같은 지역사회의 전통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이 일차적 유대관계의 지속을 더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응답된 지역사회 공동자원은 천막,상여 등으로 이러한 공동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보다 전통적인 주민간의 유대감이나 유대관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관계망 강도가 높을수록 농촌주부들 사이의 자원교환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 가정경영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자원을 빈번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대면접촉으로 측정된 사회관계망 경계가 약할수록 자원교환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망 경계가 분명할 때 지역사회 내부자원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근린이론과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상의 분석결과 자원교환행동은 마을소유의 공동자원과 같은 근접환경변인에 영향을 받으며 관계망 강도와 관계망 경계(면대면접촉)와 같은 사회관계망 구조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역사회 자원인지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지역사회자원인지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5>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자원인

<표 5> 지역사회자원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회귀계수	
	B	β
주부학력	0.113	0.215*
가정소득	0.001	0.277**
자녀수	-0.004	-0.003
성장지	-0.157	-0.030
막내연령	-0.018	-0.070
농업노동	-0.021	-0.050
부업노동	-0.017	-0.056
생활수준	0.089	0.021
마을공동자원	0.313	0.196
공장유무	0.360	0.088
관계망범위	0.096	0.051
관계망강도	0.053	0.193*
관계망경계	-0.128	-0.063
관계망경계	0.446	0.187
자원교환행동	0.091	0.155
상수	5.278	
설명력	0.302	
F값	3.312***	

* P<.05, ** P<.01, *** P<.001

지는 가정소득($\beta = .277, p < .001$), 주부학력($\beta = .215, p < .05$), 사회관계망 강도($\beta = .193, p < .05$)의 순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 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자원인지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자원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사회자원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소득과 같은 가정자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자원인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학력과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이 아닌가 추측된다.

사회관계망 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자원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망구조 변인 중 사회관계망 강도만이 지역사회자원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회관계망의 특성보다 주민들 사이의 친근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지역사회자원을 높게 인지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지역사회자원인지는 자원교환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교환행동은 주민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자원이 교환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자원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대한 바와 상이한 결과이다. 결국 지역사회자원은 구체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자원을 교환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매우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강도 높은 사회관계망을 지닐 때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원교환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에서 지역사회자원인지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 강도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교환행동과 지역사회자원인지가 모두 사회관계망 강도에 영향을 받으나 자원교환행동이 지역사회자원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두 변인 모두 지역사회내 사회관계망이 매개체가 되지만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두 변인이 상이한 차이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V. 요약 및 결론

농촌지역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동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사회 역시 공업화로 인해 가정의 근접환경조건이 변화되고 있어 농촌주부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유형의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자원교환행동을 조사하고 이것과 지역사회자원인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국의 24곳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농업노동은 사회관계망의 범위를 넓혀주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노동은 노동

수행의 성격상 농촌주민들 사이의 협업노동을 필요로 하며 이는 농촌주부들이 노동수행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과 친분관계를 갖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촌의 경우 저소득층의 강도 높은 사회관계망 유지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직업정보, 위기시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으로 중요한 생존전략이 된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사회관계망을 구직정보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으며, 도시와 비교할 때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회관계망 강도는 적어도 저소득층의 경우 도시와 농촌에서 상이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사회관계망 경계(면대면 접촉)는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로 전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농촌지역사회가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이므로 지역사회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조건이 해당 지역의 도시적 또는 농촌적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반면 지역사회가 마을공동자원과 같은 좀 더 전통적인 특성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을 때 그 지역사회가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관계망 경계(면대면 접촉)가 마을의 전통적 성격을 반영해 주는 마을소유의 공동자원이라는 근접환경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근접환경의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농촌주부들 사이의 긴밀한 사회관계망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사회관계망 구조의 범위나 강도는 주부의 개인적인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반면 사회관계망 경계는 마을의 공동자원, 마을의 생활수준과 같은 근접환경조건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관계망 구조가 상이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원교환은 마을 소유의 공동자원이 많을 수록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반면 공장유무는 자원교

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활발한 자원교환을 통해 일차적인 지역사회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에 공장을 설립하여 농가소득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농촌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나 비품들을 마을공동으로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자원교환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변인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관계망 범위는 자원교환을 예측하는데 의미가 없으며 사회관계망 강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농촌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하겠다. 한 예로 친밀한 사회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역사회자원인지인 경우에도 가정이 지니고 있는 가정자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소득과 주부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나 비정규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농촌주부의 지역사회자원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대기(1989), 현대도시론, 민음사.
- 2) 권현수(1992),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주숙(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 아카데미.
- 4) 디킨, R. F. 화이어버 지음, 가정관리학 연구회 역 (1991), 가족자원관리, 한울 아카데미.
- 5)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P. 43-58.
- 7) 신기영, 옥선화(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1호, pp. 161-178.
- 8) 양인숙(1991), “시험불안과 사회적 지지요인과의 관계 연구-고등학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오승환(1990), “도시민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원효종, 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1호, pp.176-190.
- 11) 이명자(1985), “독립거주노인의 생활과 부양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천주교회 노인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임정빈 외(1994), 가정관리학, 서울 : 학지사.
- 13) 조은, 조옥라(1992), 도시민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 14) 차성란(1985),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_____ (1993), “도시주부의 근접환경자원을 이용한 가정생활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최정아(1991),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최호숙(1992), “체제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주부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갈등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Cook, K. S., R. M. Emerson and M. R. Gillmore (1983),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Exchange Networks: Theory and Experimental Results”, A. J.S. Vol.89, No.2, pp.275-305.
- 19) Eckenrode, J. and Susan Gore(1981), “Stressful Events and Social Supports: The Significance of Context”, i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ed by Benjamin H. Gottlieb), Sage Studi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Sage Publications

- Beverly Hills, London.
- 20) Baldassare, M. and Claude S. Fischer(1975), "Suburban Life : Powerlessness and Need for Affiliation", *Urban Affairs Quarterly*, Vol.10., No. 3, March, pp.314-326.
 - 21) Fischer, C. S., "Toward a Subcultural Theory of Urbanism", *A.J.S.*, Vol.80, No.6, pp. 1319-1341.
 - 22) Fischer, C. S., Jackson, R.M., Stueve, C. A., Gerson, K., Hones, L. M. and Baldassare, M., *Networks and Places: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Setting*, New York: Free Press, 1977.
 - 23) Gans, H.J.(1962), *The Urban Villagers*, New York : Free Press.
 - 24) Kasarda J. D. and M. Janowitz(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9, June, pp.328-339.
 - 25) Keith, P. M.(1986). *The Social Context and Resources of the Unmarried in Old Age*.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3. no.2. pp. 81-96.
 - 26) Levitt, M.J.(1986).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Preliminary Indicators Based on Two Samples of the Elderly*.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1. no.1. pp.61-77.
 - 27) McIntyre E. L. G.(1986), *Social Networks : Potential for Practice*, Social Work, 1986.
 - 28) Mitchell, J. C., *The Concept and Use of Social Networks*, In J. C. Mitchell(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Manchester, England: University of Manchester Press, 1969.
 - 29) Silverman, C. J.(1987), "Neighboring and Urbanism: Commonality versus Friendship", *Urban Affairs Quarterly*, Vol.22, No.2, Dec., pp.312-328.
 - 30) Wellman, Barry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B. H. Gottlieb(ed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31) Whittaker & Garbarino(1983), *Social Support Networks*, N. Y. Aldine Publishing Company.
 - 32) Wilcox, B.L.(1981), "Social Support in Adjusting to Marital Disruption", i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 H. Gottlieb(ed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33) Young , M. and P. Willmott(1957), *Family and Kinship in East London*, Baltimore; Penguin.